

7월 프로배구 코보컵 파행 가능성

선수 없는 러시안캐시 유니폼만 코트 누빈다?

신인드래프트 전 선수수급에 문제 제7구단 러시안캐시 출전 불가

드림식스 네이밍스폰서는 7월까지 인수한 우리카드 유니폼은 못입어

7월 열릴 프로배구 코보(KOVO)컵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제7구단으로 출범한 신생팀 러시안캐시는 선수가 없어 대회출전이 불가능하고, 우리카드가 인수한 드림식스는 러시안캐시 이름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이는 3월7일 총회에서 우리지주가 인수하기로 결정한 드림식스의 새 출발이 8월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7월31일까지는 네이밍스폰서 계약을 맺은 러시안캐시의 이름을 달아야 한다. 러시안캐시는 4월25일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제7구단으로 신생팀 참여가 결정되자 기존의 러시안캐시와 정(情) 떼기를 해왔다. 3월말에 선수들과 작별식도 했다. 드림식스 선수들은 최근 러시안캐시 최을 회장을 찾아 십시일 반으로 모은 돈으로 명품 구두를 사서 선물했다. 어려움을 때 자신들을 도와준 회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러시안캐시는 네이밍스폰서 비용으로 17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일시납이 아닌 분납방식이다. 4월까지의 약속했던 돈을 한국배구연맹(KOVO)에 지급했다. 5월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남은 돈은 4억원 가량. 우리카드가 팀을 인수했고 실제로 구단업무도 들어간 마당에 계속 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우리카드는 8월1일 인수 이후 본격적으로 구단업무에 들어간다는 태도다. KOVO를 퇴사하고 우리카드를 자리로 옮긴 실무자가 FA선수 이강주와 협상을 하는 등 사실상 선수권리는 우리카드가 하고 있다. 사령탑도 강만수 감독으로 선임했고, 훈련도 시작했다.

여기에 아산시라는 변수도 있다.



드림식스를 인수한 우리카드가 7월 KOVO컵에 러시안캐시 이름으로 출전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KOVO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다. 2012~2013시즌 러시안캐시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 스포츠동아DB

아산시와 KOVO가 약속한 연고지 사용 기한은 4월 말이었다. 우리카드가 계속 아산에 머문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서울로 가겠다고 하자 아산시도 협조를 거부했다. KOVO가 중간에 나서 노력해왔지만 허사였다. 사용해왔던 훈련장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2개월가량 선수들이 옮겨 사용할 훈련장과 숙소를 결정하기 위해 KOVO와 우리카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제7구단 러시안캐시도 갑갑한 상황이다. 신인 드래프트는 빨라야 8월에 열린다. 대학연맹이 협조해야 한다. 대학은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선수들을 드래프트에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동안 대졸신인 드래프트는 전국체전이 끝난 뒤 실시했다. KOVO가 빠른 드래프트를 원하지만 대학연맹은 대학 지원금 규모를 놓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섰다.

각 구단의 선수등록 마감은 6월 말이다. 그때 이후에야 8명 보호선

수를 제외한 선수수급이 가능하다. 원소속 구단과 협상이 결렬된 FA선수와 접촉도 5월11일부터는 가능하지만 원소속구단이 선수를 원할 경우 방법은 없다. 러시안캐시는 지금 감독 김세진 한 명 뿐이다. 러시안캐시는 빨라야 9월에 선수단 구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2013~2014시즌은 7구단 체제여서 시즌 개막이 10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와 선수끼리는 물론이고 외국인 선수와 손발을 맞춰볼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이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할 KOVO 신원호 사무총장은 “네이밍스폰서의 기간을 6월 말까지로 하고 7월부터는 우리카드가 구단을 맡아 코보컵에 참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같은 이사회 구성원이 됐으니 서로 양보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8일(한국시간) 체스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서부 콘퍼런스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오클라호마시티 케빈 듀란트(35번)가 코트에 넘어진 뒤에도 침범을 발휘했다. 뎀피스 토니 앨런의 수비를 피해 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시티(미 오클라호마주) | 로이터연뉴스

농구대표팀 男 유재학·女 위성우 체제로

우승팀 감독들, 亞선수권 지휘봉

2012~2013시즌 남녀프로농구 우승 사령탑인 모비스 유재학(50) 감독과 우리은행 위성우(42) 감독이 2013년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남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농구협회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유재학 감독과 위성우 감독에게 올해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다.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펼쳐진다. 두 대회에는 내년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본선 티켓이 걸려있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때도 대표팀 지휘봉을 쥐었던 유 감독은 3년 만에 다시 아시아에 정상에 도전한다. 유 감독은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2위



유재학 감독(왼쪽)과 위성우 감독. 스포츠동아DB

에 올랐었다. 사령탑 데뷔 시즌이었던 2012~2013시즌 우리은행을 당당히 우승으로 이끈 유 감독은 처음으로 태극강자들을 지휘하게 됐다.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2011년 여자대표팀은 2위, 남자대표팀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남녀농구대표팀이 내년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남자는 준우승 이상, 여자는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콘리 4Q 원맨쇼 뎀피스 반격 1승

4강PO 오클라호마 제압 승부원점



반격의 1승이었다. 이제 승부는 원점이다. 미국프로농구(NBA) 뎀피스 그리즐리스가 8일(한국시간) 체스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서부 콘퍼런스 4강 플레이오프(PO·7전4승제) 2차전 원정경기에서 26점을 기록한 마이클 콘리의 외곽포에 힘입어 오클라호마시티 선더를 99-93으로 물리치고 1패 뒤 1승을 챙겼다.

69-74로 뒤진 채 4쿼터에 돌입한 뎀피스는 콘리의 3점슛을 신호탄으로 토니 앨런의 득점까지 이어져 승부를 점전으로 끌고 갔다. 경기 종료 1분 58초 전 89-90으로 밀리던 뎀피스는 콘리의 3점슛과 2점슛이 연속으로 터져 94-90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뎀피스는 종료 13초 전 잭 랜돌프의 자유투와 앨런의 덩크로 97-90으로 달아나며 오클라호마시티의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케빈 듀란트가 36점을 올리며 제 몫을 다했지만, 또 다른 간판스타 러셀 웨스트브룩의 부상 결장 탓에 막판 고비를 넘지 못했다.

동부 콘퍼런스에선 뉴욕 닉스가 32점을 터트린 주포 카멜로 앤서니를 앞세워 인디애나 페이스스를 105-79로 완파하고 시리즈 전적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이탈리아산 통가죽벨트 59,000원

최고급 오리지널 정장, 캐주얼 통가죽 명품 벨트
진정한 패션의 종결자로 만든 혼과 열이 깃든 작품



탈부착이 가능한 금속버튼, 출시 기념 두 개 제공.

착용하고 만져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명품 블랙라이언 통가죽 벨트 2차 시리즈가 출시되어 벌써부터 주머니 색도해 즐거운 비명이 절로 나온다. (주)바이원클럽 관계자는 말한다.

100% 이탈리아산 소가죽이 식물성 태닝을 거쳐 기품이 넘쳐 블랙라이언 명품 통가죽 벨트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식물성 태닝(무두질)을 마친 후 전량 수입해 30년 된 장인의 거친 손에 의해 국내에서 직접 제작됐다. 값이 두 세배 비싸지만 수명이 길고 잘 굽히지도, 잘 닳지도 않아 오랜 세월 착용해도 처음 느낌 그대로다. 이탈리아 펠레(가죽) 협회가 인증한 인증서를 각 벨트마다 부착해 믿고 살 수 있다.

30년된 장인의 손을 거쳐만 탄생하는 고품질의 고품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장인 중의 한 분이 엄선된 가죽을 직접 재단하고 버블을 제작하는 일을 총괄한다. 그는 가죽을 옷감 다루 듯하고, 최고급 금속버클을 대리석 조각하듯 심혈을 기울여 한점의 흠집도 용서하지 않는다. 벨트의 섬세한 각진 부분과 구부러진 부분, 미세한 버클 고리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꽃피는 춘삼월에 맞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한 디자인이 돋보여

패션의 종결자로 마무리하는 벨트와 구두를 빼놓을 수 없다. 바지가 흘러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 색상과 디자인, 바지의 컬러 등 다양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수많은 디자인과 시간 속에서 선택한 블랙라이언 명품 벨트가 탄생한 것이다.

분위기가, 패션스타일, 용도에 맞게 골라 보는 재미 쏠쏠

골프벨트는 골프와 캐주얼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기능성을 첨가했다. 온 된 골프 볼을 마크할 수 있는 50원짜리 동전 만한 금속 버튼을 벨트에 부착,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정장벨트는 이미 베스트셀러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바이원 클럽의 대표작이다. 별빛 속에 포효하고 있는 블랙라이언을 최고급 금속버클을 달았다. 화이트벨트와 오리지널벨트는 실속파와 클래식한 멋을 아는 중년 남자의 마지막을 책임진다. 블랙라이언 명품벨트는 뭐니 뭐니 해도 구입하고 착용하신 분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바이원클럽의 보물이다. 이 정도 퀄리티의 유명 메이커는 몇 십만 원은 지불해야 한다. Made in Korea.

BLACKLION

이탈리아 펠레 협회 가죽 인증서.

60% 할인

A 블랙라이언 골프 벨트
"탈부착 가능 버튼 두 개 증정"
B 블랙라이언 오리지널 정장 벨트
회원특가 158,000원 → 59,000원

C 블랙라이언 프리미엄 화이트 벨트
D 블랙라이언 프리미엄 오리지널 벨트
회원특가 120,000원 → 49,000원

제품신청 1544-0247
쇼핑몰 www.buy1club.com